

세계 IT산업 향방과 우리나라 IT 수출

이우성 / LG경제연구원

전세계적인 IT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T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 IT산업의 급성장이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수요처인 미국의 IT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이 같은 회복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1년 사상 최대의 침체를 겪었던 세계 IT산업은 올 초만해도 미국경기의 빠른 회복세와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은 미국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IT산업 특히 통신장비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IT 수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부분품을 수출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와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반적인 IT수출의 핵심은 미국 IT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IT경기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 IT시장의 잠재력을 타진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IT수출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

세계 IT산업 불황 미국의 과잉투자가 핵심

현재 세계 IT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심각한 불황을 보이고 있는 데는 미국의 과잉투자가 최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 IT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미국 IT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도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한 닷컴 기업과 미국 전통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수요를 확대

시키면서 미국 IT산업의 수요를 증대시켰고 이는 아시아 각국 조립생산기지의 생산 확대로 이어졌다. 여기서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미국과 아시아로의 완제품, 부분품의 하드웨어 수출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첨단장비 수출을 확대하는 패턴을 갖고 있다.

반면에 유럽시장은 IT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미국과 일본을 두 축으로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산업내 무역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시장은 무선통신산업이 미국과의 연관성이 높을 뿐이다.

미국의 디지털 붐은 실물부문에서 지나친 IT투자 과열로 이어졌다. 미국의 전통 대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은 e-business와 업무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통합, 자동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비를 지출하였다. 이러한 과열투자 과정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통신산업 역시 통신망의 과잉설치와 과도한 통신사업자가 양산되었다. 여기에 인터넷 단말기로서의 컴퓨터, 그 부분품으로서의 반도체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00년 하반기 이후 이러한 과잉투자의 반작용으로 미국 IT산업은 극심한 불황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결국 현재 IT산업의 향방은 소비자들의 IT

지출 회복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IT투자 회복이 중요한 열쇠이며 IT부문의 과잉설비 조정 여부가 핵심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과잉설비 조정 내년 초까지 지속될 전망

그렇다면 IT투자를 포함한 미국의 투자가 언제쯤 회복될 것인지를 알아보자. 우선 미국투자의 과잉여부를 추정해보았다(구체적인 추정방법은 주간경제 634호 '미국 IT침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2001. 8.1 참조). 2002년 1/4분기의 자료까지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 미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과잉투자의 양상을 보였으며 2001년 1/4분기에 정점을 이룬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과잉투자의 규모가 급속도로 줄어들어 2002년 1/4분기에는 적정 수준으로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투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미국의 현재 투자규모가 적정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기업의 투자는 앞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과거 경기순환의 양상과 과잉-과소투자의 순환을 살펴보면 과잉투자 이후 상당기간 과소투자의 과정을 겪었는데 이는 과잉투자 기간동안의 축적된 과잉설비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순환기에도 이 같은 조정기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미국경제의 회계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달러화 가치의 하락, 주식시장의 붕괴 등 투자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T투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자본재 주문과 산업생산자료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2년 들어서 1년 이상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2001년 3/4분기 -4.7%, 4/4분기 -6.7%)을 마감하고 1/4분기와 2/4분기 모두 연율로 2.6%, 4.6%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소비재 생산은 1/4분기와 2/4분기 3.7%, 1.7% 늘어났는데 반해 사업장비(business equipment)는 지난 해의 높은 하락에 비해 둔화세가 완화되었지만 아직 -4.4%, -2.1%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컴퓨터 본체 침체 지속, 주변기기는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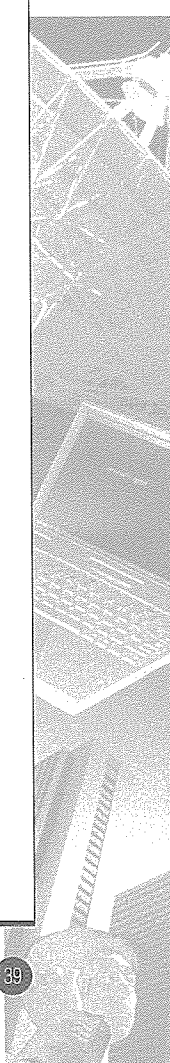
전체 투자 회복이 더딘 양상을 보인다면 결국 IT산업 역시 회복시점이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컴퓨터와 사무장비, 반도체와 관련전자부품의 생산이 지난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동률은 아직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와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것도 수요측 요인보다는 지난 1/4분기 미국 재고투자변화분이 지난 4/4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따라 재고투자분을 상쇄하기 위한 생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통신장비의 경우 산업생산이 올해 2/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가동률이 계속 하락하여 2002년 2/4분기 현재 최저치인 53.5%를 기록하고 있어 가장 큰 침체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침체국면이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통신업 불황 본격화

미국내 통신산업의 불황은 다른 IT부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통신장비 분야의 재고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는 산업생산



자체가 크게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며 가동률도 사상 최저 수준이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월드콤의 파산과 미국 통신사업자들의 과도한 부채수준이다. 북미지역에서 파산한 통신업체는 글로벌 크로싱, PSINet 등 10여개에 달하며 미국 통신장비 업체에서 2001년 이후 해고된 종업원도 50여만명에 달한다. 통신업체의 부채가 높은 상태에서 월드콤의 파산은 상호의존도가 높은 통신시장에서 연쇄적인 파산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01년 닷컴 기업들의 붕괴로 통신장비, 컴퓨터 등에 대한 IT 투자수요가 급감하였다면 통신업체의 파산과 버블붕괴는 닷컴붕괴와 IT투자 감소의 후폭풍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의 침체도 IT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닷컴기업에 대한 환상과 정보통신에 대한 기대로 전반적인 주가수준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장기적인 기업들의 수익악화는 결국 주식시장이 적정주가 수준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침체 과정가운데 드러난 회계부정 여파로 상당 기간 주식시장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IT 산업 내년초 바닥 가능성

결국 미국 IT산업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한 완만한 수요회복에도 불구하고 올 해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해 미국 IT산업은 공급측면에서 과잉설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과소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IT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본체의 경우 신규주문 증가율도 5월까지 전년동월대비 20%이상의 감소율을 지속하고 있고 6월 내구재 주문지표는 더욱 하락하여서 올 해 실질적인 회

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닷컴기업의 붕괴로 IT수요의 한 축이 무너진 상태에서 통신업체의 불황이 또 다른 IT투자수요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회계부정으로 인한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미국 IT산업의 회복도 투자수요의 회복과 과잉설비의 해소, 공급구조조정에 달려 있다. 올 해 미국 기업들의 과잉설비를 상쇄하는 과소투자가 계속된다면 내년 초에는 과소투자의 바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부채 문제가 심각한 통신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합병과 파산 등 공급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내년도 미국 IT산업과 일본, 아시아 국가의 IT산업의 실질적인 회복국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IT산업 : IT버블 붕괴는 없으나 미국 의존도 높아

세계 IT산업의 향방은 미국IT산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경제와 일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IT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해의 우리나라의 IT수출 불황에는 우리나라 IT수출대상 2위국인 대일 수출의 급감(2001년 -23.3%)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경제에 있어서도 PC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도 반도체산업의 생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PC산업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산업 생산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2/4분기까지 10%

이상의 성장을 하던 PC산업생산이 3/4분기부터 2002년 6월까지 15% 가까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회복기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반면 반도체 및 부품품의 경우 지난 해와 올해 1/4분기까지 20%이상의 감소를 겪다가 2/4분기에는 두 자리 수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경제의 경우 IT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없었지만 미국에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점과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부품품과 자본재가 이들 동남아 국가들의 대미수출 중간재로 사용된다는 점은 일본도 미국 IT침체의 여파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통신장비 시장도 크게 침체를 겪고 있다. 일본의 통신장비 산업은 지난 해 3/4분기부터 30%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IT산업 : 무선통신산업의 과잉부채

유럽 IT산업은 통신분야의 막대한 부채가 IT회복의 걸림돌이다. 유럽의 경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전자장비 분야의 부채는 각각 121억 달러, 372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기업의 부채(794억 달러, 911억 달러)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반면 통신분야의 부채는 미국이 5,104억 달러, 유럽이 5,026억 달러로 막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3G특허권 획득을 둘러싼 무선통신 분야의 부채가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전자장비, 통신분야의 부채가 각각 149억 달러, 161억 달러, 485억 달러 수준으로 과잉투자의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다행히 유럽시장 통신업체의 불황이 우리나라 IT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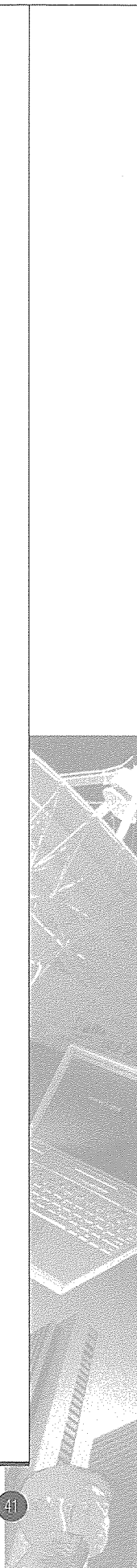
나라의 10대 IT 수출국 가운데 속하는 영국과 독일의 우리나라 IT수출시장 점유율은 각각 4.1%와 3.8%로 10% 미만에 머물며 그 가운데 통신장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적어 우리나라 IT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IT산업 : 아시아 역내 무역과 성장의 새로운 축

미국을 중심으로 한 IT경기 침체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IT산업만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IT산업의 세계적인 공급과잉 상태에서 중국의 인터넷과 무선통신에 대한 신규시장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이 정보접근의 제한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까지는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느린 반면 무선통신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유선통신망이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이 기술적으로나 비용면에서 우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중국에서 휴대폰 사용자는 총 1억7천616만명으로 2001년 말에 비하여 21.6%나 증가하였다. 현재 휴대폰 가입자수는 매달 50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판매도 2002년 1~4월 중국의 휴대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55.3% 성장한 3,207만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중국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13.9%로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인구도 6월말 기준 5,660만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시장이다. 이러한 인터넷 인



구는 중국 13억 인구의 3.6%에 불과한 수치로 향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에서의 컴퓨터 매출액 역시 전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해 상반기 중 중국 컴퓨터시장의 매출액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5.9%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연간 판매량이 1,000만대 정도로 이제 시장형성 초기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최근 IT수출 회복세 대중국 수출이 크게 기여

우리나라의 IT수출은 미국과 일본 IT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7월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를 포함할 경우 올 해 3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이미 4월부터 2자리수의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IT수출의 빠른 회복은 세계 IT경기의 침체와 크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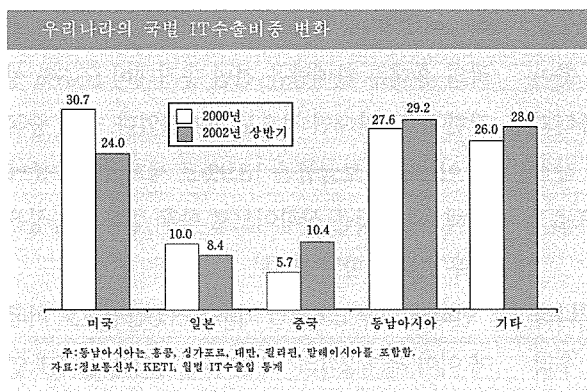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의구심은 풀리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IT경기 불황의 원인인 컴퓨터 유선장비 분야의 수출이 2002년 상반기까지 두 자리수의 마이너스 증가율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무선통신장비와 단말기, 액정모니터의 수출이 크게 호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IT수출이 중국, 동남 아시아에서 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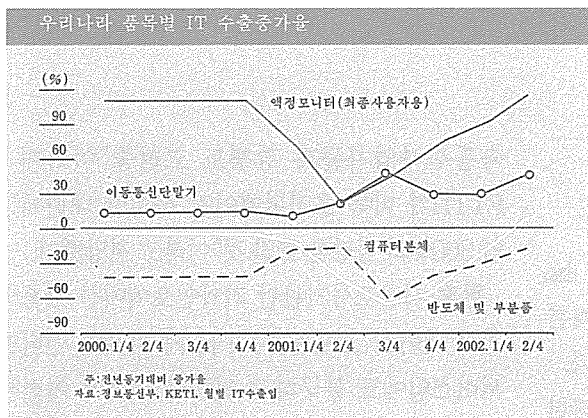
장을 형성하고 있는 무선 통신단말기 시장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컴퓨터 주변기기인 TFT-LCD 수출이 큰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IT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수입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와 동남아 국가들에게 수출 수요의 새로운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해준다. 더구나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관세, 비관세 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으며, 특히 ITA 협약 가입으로 IT 제품에 대해 제로(0)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향후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전망이 매우 밝다. 여기에 고도 성장 지속에 따른 IT 제품 수요의 급증, 2008년 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첨단 제품 수요 등은 매우 유리한 기회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집중도가 중국 수입수요의 급증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면 아시아 역내 무역으로 미국시장 침체의 역풍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을 최근 GSM 위주의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탈피하고 CDMA 방식의 이동통신 시장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 이는 GSM과 CDMA의 경쟁을 통해 중국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선진 기술 습득이나 중국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함인데, CDMA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된 셈이다. 한편 중국은 광대한 국내 통신 시장을 무기로 독자적인 기술 표준을 개발, 핵심 기술 보유면에서 서구 선진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와의 공동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중국 시장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국이 전세계적인 가전 생산 왕국이 되면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핵심 부품 수요는 향후 더욱 증대될 것이다. TFT-LCD, 가전제품용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품군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경우 향후 수출 전망도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미국 IT산업 불황 지속시 우리 수출회복도 제한적

이상 세계 IT산업의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IT수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경우 유럽시장이 GSM방식의 무선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라 GSM무선통신 단말기는 올 해에도 마이너스 성장세가 예상되는 반면 중국과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 CDMA방식의 무선통신시장은 오히려 큰 폭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폭발적인 무선통신 가입자 증가와 미국에서의 CDMA비율 증대 등은 무선통신장비 수출 호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의 경우 PC본체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주변기기 판매는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 본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부품품 등 컴퓨터 부품품에 대한 수출전망은 그리 밝다고 할 수 없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한계기업의 파산과 합병 등으로 공급과잉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우리나라의 주력 반도체인 DRAM의 수출비중이 2000년 92%에서 2001년 66%로 낮아진 반면 핸드폰 등 플래쉬 메모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등 다각화 전략이 주요하고 있

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의 구조조정과 매각합병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급속도로 해결되지 않는 한 PC산업의 장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진으로 반도체 산업의 실질적인 회복은 내년 하반기에나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인 IT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T수출이 소폭이나마 회복되고 있는 것은 이동통신과 LCD에서의 기술혁신, 그리고 중국이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큰 역할을 하였다. 미국시장에의 집중도가 중국 수입수요의 급증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IT 분야에서 아시아 역내 무역의 증가로 이어져 미국시장의 침체의 역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 IT산업 회복여부는 미국시장의 향방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미국 IT투자부진이 계속되는 한 우리 IT수출 회복세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료제공 : 주간경제 687호)